

02 학교 생활 기록부

대학이 실제로 읽는 칸

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안 가는 것들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무엇이 안 가나	3
03 그러면 무엇이 남나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미기재와 미반영은 다릅니다** — 낱말 하나가 판단을 가릅니다
- ◆ **대입에 안 가는 일곱 가지와 아예 안 적는 셋** — 표로
- ◆ **빼고 나면 무엇이 남나** — 세특이 가장 무거워지는 까닭
- ◆ **지금 하고 계신 일 중 헛수고를 가려내는 표**

01 · 먼저 사실부터

적혀도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

학생부에 적혀 있다고 대학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. 「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」(2019-11-28)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(졸업생 포함) 적히기는 하는데 대입 전형자료로 안 보내는 칸이 생겼습니다. 여기를 모르면 헛수고를 합니다.

날말	뜻
미기재	학생부에서 아예 지운 것 — 칸 자체가 없습니다
미반영	학생부에는 적히되 대입 전형자료로 안 보내는 것

이 둘을 섞어 쓰는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. 미반영인 칸은 학생부에 그대로 보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「있다」인데 대학에는 「없다」가 됩니다.

학생부를 펼쳐 놓고 「이만하면 됐다」고 판단하실 때 이 칸들을 세고 계실 수 있습니다.

왜 이렇게 바뀌었나

이름이 「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」입니다. 바깥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대입에서 빼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.

대회 입상, 자격증, 해외 활동, 소논문 — 돈과 어른의 손이 닿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차례로 빠졌습니다.

그러니 이 표는 「무엇이 없어졌다」의 목록이면서 동시에 「무엇이 남았나」의 목록이기도 합니다. 남은 것은 대부분 수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.

출처: 교육부 「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」(2019-11-28)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 참고자료. 졸업생도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같이 적용됩니다.

02 · 무엇이 안 가나

일곱과 셋

대입에 안 가는 것 (미반영)		학생부에는
1	수상경력	적힙니다
2	자율동아리	적힙니다
3	개인봉사활동 실적	적힙니다
4	진로희망분야	적힙니다
5	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	적힙니다
6	독서활동	적힙니다
7	영재·발명교육 실적	적힙니다

아예 안 적는 것 (미기재)		학생부에도
1	방과후학교 활동(수강) 내용	없습니다
2	청소년단체활동	없습니다
3	소논문	없습니다

위 표의 첫 줄을 특히 보십시오. 수상경력이 대입에 안 갑니다. 교내상만 적히는 칸인데, 그 교내상마저 대학에는 안 보냅니다.

그리고 독서활동도 안 갑니다. 책 목록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쓰고 계시다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.

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—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(‘(학교)’로 등록)만 대입에 반영된다

출처: 위와 같음. 이 표는 대입 기준입니다. 고입과 취업은 보는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03 · 그러면 무엇이 남나

남는 칸이 무거워집니다

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를 보시겠습니다.

대입에 가는 칸	무게
교과 성적	등급과 성취도
세부능력 및 특기사항	가장 큼니다 — 과목마다 500자
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	자율·자치 / 동아리 / 진로 각 500자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	300자
출결	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읽힙니다

둘째 줄이 이 표의 결론입니다. 실적으로 채우던 칸이 다 빠지고 나면 세특이 가장 무거워집니다.

세특은 과목마다 있으니 수가 많고, 수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바깥에서 사 올 수 없습니다.

이 변화의 방향

바깥 실적을 빼고 학교 수업 안으로 모은 것입니다. 대회·자격증·독서 목록처럼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차례로 빠졌습니다.

그래서 「무엇을 더 할까」보다 「수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」가 실제 물음이 됐습니다.

출처: 위와 같음. 대학이 각 칸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·전형마다 다릅니다 — 모집요강의 서류평가 항목을 확인하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헛수고를 줄이는 법

이런 일을 하고 계시면	다시 보십시오
교내 대회 수상을 노리는 것	대입에 안 갑니다
독서 목록을 채우는 것	안 갑니다 — 다만 세특에 녹으면 갑니다
자격증을 따는 것	안 갑니다 (직업계고 NCS는 별도)
자율동아리를 만드는 것	안 갑니다
개인 봉사를 채우는 것	안 갑니다 — 학교 계획 봉사 는 갑니다

둘째 줄에 길이 있습니다. 독서활동 칸은 안 가지만, 읽은 책이 수업 발표나 탐구로 이어져 세특에 적히면 그건 갑니다.

책을 읽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. 목록을 채우는 것과 읽고 무언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.

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미기재 와 미반영 의 차이를 아는가
- ☐ 수상경력이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
- ☐ 독서활동이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
- ☐ 안 가는 칸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
- ☐ 세특이 가장 무겁다 는 것을 아는가
- ☐ 세특이 과목마다 있는지 확인했는가
- ☐ 읽은 책이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
- ☐ 봉사가 학교 계획 에 따른 것인가

넷째가 이 편의 이유입니다. 안 가는 칸을 채우느라 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이 표를 보고 「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」로 읽지는 마십시오. 빠진 것은 「따로 만들 수 있는 실적」이고, 남은 것은 「수업에서 드러나는 것」입니다.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리가 옮겨간 것입니다. 그리고 옮겨간 자리는 돈으로 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— 저희는 그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대입 반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상을 받아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나요?

대입 전형자료로는 안 갑니다. 그건 분명합니다.

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—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떤 칸에도 적을 수 없습니다. 창체 특기사항에도, 세특에도, 행특에도 안 됩니다. 「대회」라는 낱말 자체를 다른 칸에 못 씁니다.

그러니 「상은 못 적어도 대회 준비 과정은 적어 주세요」도 안 됩니다.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대회는 준비 과정과 참가 사실까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.

다만 대회와 무관하게 한 탐구라면 그건 세특에 적힐 수 있습니다. 같은 공부라도 「대회 때문에」가 아니어야 합니다.

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. 준비하며 배운 것은 남습니다. 다만 입시 자료로는 안 쓰입니다.

Q. 그럼 학종이 불리해진 건가요?

학생에 따라 다릅니다. 다만 방향은 뚜렷합니다.

바깥에서 실적을 만들 수 있던 학생에게는 불리해졌습니다. 대회·자격증·해외활동 같은 것으로 채우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.

학교 수업을 성실히 한 학생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. 남은 칸이 전부 수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.

그래서 「학종은 돈 있는 집이 유리하다」는 말이 예전만큼 맞지는 않습니다.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— 수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도 차이는 있습니다.

다만 그 차이는 예전보다 좁아졌고, 좁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였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수상·독서·자격증·자율동아리·개인봉사는 대입에 안 갑니다. 남는 것은 성적과 세특, 창체 특기사항, 행동특성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. 대학·전형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니 — 모집요강의 서류평가 항목을 확인하십시오.